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6:39

역자가 본 《진노의 잔》, 그리고 본회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가 무척이나 두렵다.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 이론과 너무나 다양한 공동체의 형태, 또는 신앙의 형태가 소개되었다. 그 중에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어떤 신앙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감히 다음의 몇 가지로 말해 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 성육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본능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들어 있는 이 욕망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많은 인물들이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결국은 추락하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본다. 독일 프로이센의 엘리트 명문가에서 팔남매의 여섯 번째로 출생한 디트리히 본회퍼! 그는 많은 특권을 누렸고 또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뛰어난 학문적 재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학문적인 교류와 발전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갔다. 그러나 뉴욕의 할렘 가에서 그는 느꼈다. 자신이 아늑하게 느끼던 명문가의 신분이 뻘뻘스런 편안함으로 다가왔고, 동 베를린의 빈민촌에서 다시 한 번 이 진리에 눈을 뗀다. 그는 가능한 낮은 자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예수의 성육신을 구원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저 먼 하늘의 일을 말하기보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바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제도 교회를 없애야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을 극복하고 오늘날 신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사회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진정한 신자 두세 사람이 모인 '형제 공동체'를 의미한다.

-예수를 믿는 삶은 바른 선택을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만족과 충만한 기쁨 속에 늘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을 상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가끔씩 부흥회나 기도원에서의 체험을 통해 엑스터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번번이 번민과 걱정과 갈등과 미움, 절망, 슬픔 가운데서 과연 내가 참 신앙인인지 질문을 던질 때도 있다. 그리고 영웅적인 신앙 인물을 사모하며 그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한 번에 자라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단번에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오랜 시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디트리히 본회퍼도 처음부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삶의 결정적인 때에 의와 진리 편에서 바른길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20세기 독일의 영성을 주도하는 행동하는 신학자가 되었다. 그는 피와 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었다.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고만해지고 우쭐해지는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번민에 빠지는 평범한 신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해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의의 길, 좁은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그의 영성은 자라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신앙인은 슈퍼맨이 아니다. 다만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위해 노력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매일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다. 본래 '증인'이란 '순교자'를 의미한다. 예수와, 예수가 대신하여 죽으신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 아닐까?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가 산대로 사는 것이요, 그 결국은 죽음이다. 예수의 삶의 종착역은 십자가였다.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나타내 주는 표징이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의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조롱받고 침 뱉음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서 서서 살다가 마침내 죽는 그 삶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삶이 아닐까?

디트리히 본회퍼의 삶을 다룬 《진노의 잔》(The Cup of Wrath)이라는 제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의로 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잔인한, 교만과 비정함에 대해 또 감사하지 않는 불경건에 대해 진노하신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다 부으시고 인류에게 용서와 자유를 선물 하셨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원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히틀러의 제3제국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사람 디트리히 본회퍼와 그의 가족, 동료들이 받아 마신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나마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제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 주길철, 손양원 목사님과 수많은 옥중성도들, 북한과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 지금도 지구촌에서 핍박과 순교를 각오한 이슬람 지역의 평신도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 순교자의 수가 다 잘 때 하늘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한다.

나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삶과 죽음에서 역시 이러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몇 번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가 미국의 할렘 가에서 이론이 아닌 고난 속에 있는 참된 신앙을 배우고 있을 때, 또 군대의 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피해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 머물기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고통당하는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는 유능한 천재 신학자로서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원하여 소위 무인간 신학원(고백교회 목회자 학교)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기꺼이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한 대변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그는 차에 치어 죽은 신자들의 장례만 치르는 목사가 되지 않고 미친 운전자들의 운전대를 빼앗아 차를 세우기 위한 일에 참여하다가 결국 자기도 이 차에 치어 죽게 된다. 또 감옥에서도 그의 탈출을 돕는 손길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안정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만약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현재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그의 신학을 정리했다 한들, 그가 지금까지 사회에 미친 영향력보다 더 클까? 신자는 죽음으로 오히려 말하는 것이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 11:4).

나는 내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한다. 조국의 교회들이 이 비싼 은혜를 정말 비싸게 그러나 또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답게 영접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생애를 그린 이 책 《진노의 잔》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
-권영진(《진노의 잔》 옮긴이, 독일 자비량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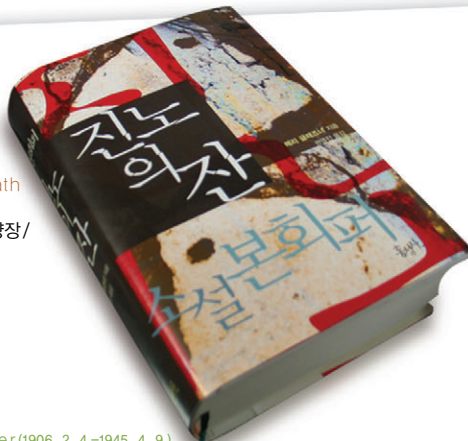
편집자의 변(辯)

“하나님의 진노가 독일에 임할 것이야. 언젠가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만 할 거야!”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된 폴란드 전쟁의 참상을 지켜본 본회퍼의 어머니 파울라의 눈에, 독일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대로 그려졌다. 히틀러가 벌여 놓은 잔혹한 전쟁터에서 독일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동안,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옹호하는 ‘독일적 교회’ (본문에서는 나치 친위대원들의 갈색 제복을 상징하는 ‘갈색 교회’로도 표현됨)와 하나님 중심을 부르짖는 ‘고백교회’로 나뉘었다. 하지만 고백교회는 ‘아리안 법령’에 따라 무참히 죽어 가는 유대인들을 보고도 그저 침묵하고, 본회퍼는 고백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의 행동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 “히틀러 암살만이 유일한 길이라 할지라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마태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유효해. 그러나 이 시대는 비상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매형과 같이 힘든 결단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필요해. 비록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자기 뒤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 짐을 스스로 지는 사람 말이야. 결과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야.” 본회퍼는 마침내 ‘죄’의 짐을 지기로 결심하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투신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암살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본회퍼를 포함한 저항동지들은 게슈타포에게 체포되고 만다. 그리고 종전을 목전에 둔 1945년 4월 9일, 히틀러의 특별 명령에 의해 그들의 사형이 집행된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디트리히 본회퍼는 젊은 나이에 벌써 명망 있는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본회퍼의 학자적 면모를 높이 산 베를린 대학교 테오도르 헤켈 교수는 그를 ‘독일적 교인’으로 포섭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 본회퍼는 그렇게 나치 정권의 특혜를 누리며 얼마든지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 그의 도움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위스 국경을 넘어 새 삶을 시작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치 에쿠메니컬 활동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독일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세계에 알렸다. 그는 듣는 데서만 그치는 교회의 설교나 대학 강단에서만 오가는 신학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나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그리고 교수형 틀 아래 무릎 꿇는 순간에도 본회퍼는 ‘멀리 철조망 너머 어둠이 가신 땅에 밝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여명’을 보았다. 《진노의 잔》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기독교 신학과 교회를 지키려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 디트리히 본회퍼의 뜨거운 열정의 시간들을 참으로 사실적으로 그려 낸다.

소설 본회퍼

진노의 잔 The Cup of Wrath

메리 글래저너 지음/권영진 옮김/B6변형/양장/640면/19,800원/일문의 글들 229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1906. 2. 4.-1945. 4. 9.)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칼 본회퍼와 파울라 사이에서 팔남매 중 여섯째로 출생. 아버지가 베를린 대학 정신의학 및 신경의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베를린 대학의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 1923년 튀빙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1927년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1930년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하고 1930년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 1931년 독일로 돌아와 베를린 대학 조직신학 강사 및 세계교회협의회 유럽 청년부 간사로 임명받아 활동. 목사 안수 받음.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부터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에 가담. 1938년 변호사인 매형 한스 폰 도나니의 소개로 히틀러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단체를 알게 되면서부터 더욱 치열한 저항운동을 벌임. 1943년 1월 마리아 폰 베데미아와 약혼. 4월 매형 부부와 함께 나치 정부에 체포되어 테겔 육군 형무소에 수감. 이후 부텐발트 수용소를 거쳐 플로센부르크로 이감되어 1945년 4월 9일 옷이 벗겨진 채 교수형 당함. 사후 에버하르트 베크게에 의해 《윤리학》(Ethik, 1949), 《역주(역사)》(Widerstand und Ergebung, 1951) 등 출간.

지면안내 紙面案内

- 1 신간소개 新刊紹介 소설 본회퍼 진노의 잔
- 2 구간추천 舊刊推薦 ●박두진 시 ‘신미명’ ●청소년 레포트 비하인드
- 3 신간입고 新刊入庫 ●진노의 잔 ●청년 리더 사역 핵심파일 ●인간 폐지 ●경종민의 인생백서

근간편집 近刊編輯

- 터키 ●교회에 첫발을 디딘 내 친구에게 ●2005 사랑의 초대(합본)
- 동상에 관게도 괜찮은가? ●엘리사의 질투

4 기획광고 企劃廣告

온고지신 溫故知新

곧 100쇄가 될
《새벽을 깨우리다》
초판 1쇄-1982년 초판부수 3,150부
...

현재 99쇄
총 39만 4천부



●www.hsbooks.com/bonhoeffer에 들어가면, 본회퍼 관련한 이말테(루터대학 칠천신학) 교수의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시 외기

신미명辛未銘

박두진

새해에는
겨레 우리 누구나가
눈물 흘릴 수 있게 하소서
겨레 우리 이웃 형제의 너무 많은 아픔
홀로 겪는 쓰라림을 나의 쓰라림으로
맑디맑고 뜨겁고 빠저린 눈물
이웃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아파할 수 있게 하소서

새해에는
우리들 누구나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뉘우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들 누구나가 알고 또 모르게
스스로를 위해서 희생시킨 타인
무관심과 냉대와 증오와 멸시까지
양심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 때문임의 아픔
낮게 더 낮게 스스로 낮춰 뉘우칠 수 있게 하소서

새해에는
겨레 우리 누구나
가슴마다 활활 끓는 금빛 햇덩어리
하나씩의 햇덩어리를 불태울 수 있게 하소서
자유, 사랑, 균등, 평화의 우리들의 꿈,
이미 치른 핏값으로도 차고 넘치는
불러도 또 불러도 신선한 이 명제,
의지, 정열, 불멸의 햇덩어리를 불탈 수 있게 하소서

출처/ 박두진 유고 시집 《당신의 사랑 앞에》

• 2006년 을 해는 병술년(丙戌年)입니다.

소설 읽기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 8

팀 라헤이·제리 젠킨스 지음_홍중락 옮김

비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자기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아버지가 비키를 불렀다. “난 오늘 밤 그리스도인이 되었단다, 애야.” 아버지가 비키를 그렇게 부른 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뭐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었지. 하지만 나는…….”

“난 주님을 알고 있었단다.” 비키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지. 나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오늘 밤 주님께 돌아왔단다. 우리 이제 교회에 다닐 거다. 그리고…….”

“교회? 난 안 가!”

“당연히 가야지.” 아버지가 말했다. “너도 구원받고 나면 교회에 가고 싶어질 거다. 빨리 가고 싶구나.”

“난 안 가. 그리고 내가 뭐에서 구원받는단 말이야?”

“지옥에서, 너의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안기게 되고,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된단다.”

“그걸 정말 믿는단 말이야?” 비키가 물었다.

“내기해도 좋아.”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어디에 내기를 걸지 말해 줄까?” 비키는 말했다. “아빠는 다시 술 마시고 욕하고 싸움질하다가 직장을 잃을 거야. 내기해도 좋아.”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비키는 자신이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뺨이라도 한 대 때려 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긴 했지만, 비키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생각은 정말 없었다.

아버지는 다가오더니 비키에게 손을 뻗었다. 비키는 순간 움찔했다. “진드리지 마!” 비키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비키의 어깨를 살며시 잡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안 때릴 거다, 비키. 안아 주마.” 비키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안긴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지금은 이런 말들이 모두 낯설게 들릴 거다. 안다. 하지만 오늘 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란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왜 귀를 기울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랬다. 이제 우리 집은 달라질 거야.”

말도 안 돼. 비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말을 믿기 힘들 거라는 걸 잘 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해 못 하는 건 네 탓이 아니야. 내가 한 번이라도 믿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야지. 이제 내가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마.”

0p10p20p28p31p40p50p70p90p100p200p300p

*청소년판의 연재는 이 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성인판 레프트 비하인드는 2006년 5월에 출간됩니다.

본회퍼 탄생 100주년 기념판

진노의 잔

소설본회퍼 The Cup of Wrath

나치 독일에 저항하며 순종의 도를 보여준
행동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앙, 사랑, 교회,
투옥, 죽음, 가족 이야기!

“이 소설은 남아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문서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생생하게 인물들을 살려내, 마치 그들의 삶의 한 장면 한 장면과 당시 있었던 대화들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듯하다.”
- 에버하르트 베트게 (옥중서신) 편자, 본회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자)

메리 글래즈너 지음 / 권영진 옮김/
B6변형 / 640면 / 19,800원 / 민음의 글들 229

메리 글래즈너 Mary Glazener
미국에 살면서 10년 이상 독일을 오가며
본회퍼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다. 1921년생.

홍성사.

T. 02-333-5161 F. 02-333-5165 http://www.hsbooks.com

MARTIN LUTHER

소설

마르틴 루터

전 2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비견되는 소설!”
- 종교개혁 이상의 개혁자 루터를 소설로 만난다!

“루터의 저작과 루터에 관한 책이라면 웬만큼 읽었다고 자부하는 나다. 그래서 뭐 별다른 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큰둥하게 이 책을 집어 들었다. 책장을 넘기자 의미심장한 시대가 펼쳐졌다. 독일이 나의 전부였고 몇 시간 동안 나는 믿음과 용기가 넘치는 신나는 세계로 빠져 들었다.”
- 켈빈 밀러 / 베스트셀러 작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이후로 이토록 나를 매혹시킨 역사소설은 없었다. (소설 마르틴 루터)는 오래도록 잊힐 책이다. 이제껏 읽은 책 가운데 최고의 작품!” - 제이슨 셰퍼드 / ‘인사이트 포 리빙’ 집필자

레그 그랜트 지음 / 홍중락 옮김 / A5신변형 / 1권 324면, 2권 304면 / 각권 8,800원

레그 그랜트 Reg Grant
달라스 신학교 목회신학 교수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연극, 영화 대본을 쓰고 제작을 맡았고 출연도 했다. 그가 제작한 영화 여러 편이 주요 영화제의 상을 수상했다. 그의 영화 두 편은 ‘미국 우수 교육영화’로 뽑혔고, 영화 세 편이 에미상 후보로 올랐으며 그 중 두 편이 에미상을 수상했다.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신간입고

新刊入庫

신간 新刊 ①

디트리히 본회퍼 탄생 100주년 기념판

소설 본회퍼

진노의 잔

The Cup of Wrath

나치 독일에 저항하며 순종의 도를 보여 준 행동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앙, 사랑, 교회, 투옥, 순교, 가족…… 이야기!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력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과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게 합니다.” -본회퍼의 마지막 설교에서

메리 글래즈너 지음 / 권영진 옮김 / B6변형 / 양장 / 640면 / 19,800원 / 믿음의 글들 229



신간 新刊 ②

청년대학부 사역에 날개를 달아 주는 임원·리더 매뉴얼

청년 리더 사역 핵심파일

청년 사역의 승패, 준비된 리더에 달려 있다

청년 리더는 사역의 최전방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할 야전지휘관과 같다. 그리고 청년 사역의 승패는 훈련받고 준비된 리더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사역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청년 리더에게 청년대학부 사역 현장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짚어 주고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해 썼다. 스스로 훈련받고 싶은 리더, 리더를 돕고 싶은 청년 사역자를 위한 책이다. 양형주 지음 / A5신변형 / 본문 2책 / 240면 / 8,500원



신간 新刊 ③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IX

인간 폐지

Ths Abolition of Man

C. S. 루이스의 예언자적 문명비평서!

이 책은 인간의 이성을 우상시하는 현대 철학의 사조를 치밀하게 비판하면서, 궁극의 선 곧 우리가 지켜야 할 '도' (道)에 대해 루이스만의 탁월함으로 변증한다.

“‘성경 외에 반드시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인간 폐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도덕률(자연법)을 완벽하고 탁월하게 옹호한 책은 여태껏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범하는 어리석음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 줄 만한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이다.” -윌터 후퍼/C. S. 루이스 전문 연구자

“치밀한 사고와 생생한 표현, 그에 걸맞은 심오한 의미의 조화! 이 책은 말 그대로 대작이다. 현대의 저작 중에서 나는 아직 이만한 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언 바펠드 / 잉클링즈 회원

C. S. 루이스 지음 / 이종대 옮김 / A5신변형 / 양장 / 128면 / 8,500원 / 믿음의 글들 230



신간 新刊 ④

'이공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는...

경종민의 인생백서

논리적으로 따져 묻기 좋아하는 나의 불신자 친구를 위한 책!

'하나님'을 말하는 책들은 대부분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만 감동을 준다. 반면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듯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신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고, 어딘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기 좋아하는 불신자들을 위한 책들은 거의 없다. 아예 기독교라는 자체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지루하고 답답한 인생살이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래서 신을 향해 따져 묻고 싶다면 《경종민의 인생백서》는 길 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과학도가 말하는 참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조용히 귀기울여 보라!

“나는 카이스트에서 2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지식만 가르치면 주어진 임무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자들과의 연구를 통해 좋은 논문을 쓰고 그들이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어 주는 것까지가 내 관심영역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나는 ‘제자들이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가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프롤로그에서

경종민 지음 / B6변형 / 양장 / 216면 / 믿음의 글들 231



행사내역

★행사명 : 12월에 있었던 'C.S.루이스의 <나니아연대기> 영화개봉기념 이벤트'

★행사내용 : C.S.루이스의 도서(홍성사 출간)를 구입하시는 독자 500분 추첨 <나니아연대기> 영화교환권 증정 행사.

★행사시간 : 2005.12.10~31

진노의 잔

인간 폐지

인생백서

청년 리더 사역

진노의 잔

인간 폐지

인생백서

청년 리더 사역

근간 新刊 ①

가고픈 성서의 땅 (1)

터키

-초대교회를 찾아서

터키 여행, 이제 나만의 가이드를 데리고 떠나자!

15년 동안 터키 곳곳을 찾아다니며 '성서의 땅' 터키를 안내해 온 터키 여행 전문 가이드 이영희 씨의 **발로 쓴 터키 여행서**.

추천! 박노해 시인

한국FPSB 윤병철 회장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건양대 관광학과 이동형 교수

허브나라 이호순 원장

정신과의사 이시형 박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

이영희 지음 / A5신변형 / 392면 / 전면 컬러

책임편집  이현주 lhj@hsbooks.com



근간 新刊 ②

교회에 첫발을 디딘

내 친구에게

영성 신학의 거인 유진 피터슨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낸 54통의 편지

40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교회로 돌아왔다. 먼저 믿은 나는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교수이자 영성 신학의 대가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편지를 썼다. 성령 안에서, 깊은 애정을 담아, 따뜻하게! 교회에 처음 등록한 친구, 교회생활에 익숙지 않아 갈등하는 친구, 참된 교제와 양육을 갈망하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책!

유진 피터슨 지음 / 양혜원 옮김 / 믿음의 글들 170 개정판 / B6변형 / 176면 / 7,800원

책임편집  이현주 lhj@hsbooks.com



근간 新刊 ③

2005

사랑의 초대

합본

그리스도를 감당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극장전도집회' 메시지

2005년 일 년 동안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에서 나누었던 이재철 목사의 열두 개 메시지를 한 권에 담았다.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는 대중문화의 장인 영화관(cinema)을 월 1회 무료로 개방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에 이어 자연스럽게 복음 메시지를 접하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극장전도집회'이다.

차례

01 질문 있습니까?

02 시간은 공간이다

03 "웃기고 자빠졌네"

04 "그 사람을 가졌는가"

05 찬송배필

06 성성의 격률

07 공즉시색空即是色

08 "올라라, 조국아여"

09 보물섬

10 삼국지

11 낙엽

12 "인생은 아름다워"

이재철 지음 / B6변형 / 양장 / 288면

책임편집  이현주 lhj@hsbooks.com

근간 新刊 ④

동성애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

동성애 관계도 괜찮은가?

(가제) Same-Sex Partnerships?

동성애는 성경적 죄악인가, 문화적 허용인가?

현 시대의 윤리 문제 중에서, 동성애만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예민한 사안은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성경적 일관성과 지혜 그리고 사랑으로서 동성애 문제에 직면할 것을 요청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다섯 가지 주요 주장과 핵심 성경 본문들, 그에 대한 반론 제기과 함께 치밀하게 파헤치면서, 그와 더불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것을 호소한다.

"성경에 충실하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존 스토트의 글이 그대로 살아 있는 책! 현 복음주의는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성숙하고도 시의 적절한 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인스 V. 하이던거 2세/굿뉴스Good News 사장

"분열된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안내서!"

-올슨 M. 해시웨이 / 피츠버그 성공회 교회 전前 주교

존 스토트 지음 / 양혜원 옮김

책임편집  한수경 refuge@hsbooks.com

근간 新刊 ⑤

엘리사의 질투 (가제)

현대적 시각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장편소설

이 소설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의 내면적 신앙을 다룬다. 엘리사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대선지자가 되려는 꿈을 꾸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영예다. 힘써 공부하며 여호와의 부름을 기다리는 도중 뜻하지 않게 엘리야라는 인물이 대선지자로 지명되었음을 알게 된다. 엘리사는 실망과 함께 엘리야에 대한 질투가 생긴다. 실망과 질투에 사로잡힌 엘리사는, 자기를 제치고 신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와 겨루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생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신앙은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힘이 된다. 또한 인생 광야의 고난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구약의 이야기인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다. 종교를 다루었지만 일방적인 기독교 예찬이 아니라 신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신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소설화했다. 성경 지식이 없는 불신자도 읽기 쉽게 썼다.

이연철 지음 / A5신변형

책임편집  한미영 myhan@hsbooks.com

近刊編輯 近刊편집

요한복음 설교집, 소선지서 강해설교집을

한 번에 장만할 수 있는 기회!

30% 할인!

국내 기독교 작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1위 (제6회 갯마을선정도서 선정)

이재철 목사의 요한복음 설교집

요한과 더불어

★ 전10권 정가 125,000원 →

한정세트 특가 88,000원

★ 설교기간 6년 2개월

★ 재집필 기간 6년 9개월

★ 전체 설교 292편, 원고지 13,000여 장!

요한과 더불어-첫 번째 산책(1-3장)_376면_11,000원 요한과 더불어-두 번째 산책(4-6장)_400면_13,000원
요한과 더불어-세 번째 산책(6-8장)_416면_13,000원 요한과 더불어-네 번째 산책(9-10장)_432면_13,000원
요한과 더불어-다섯 번째 산책(11-12장)_504면_14,500원 요한과 더불어-여섯 번째 산책(13-15장)_448면_13,500원
요한과 더불어-일곱 번째 산책(16-17장)_528면_15,000원 요한과 더불어-여덟 번째 산책(18-19장)_448면_12,500원
요한과 더불어-아홉 번째 산책(20장)_336면_10,000원 요한과 더불어-열 번째 산책(21장)_336면_10,000원

● 세트 구매자에게는 <요한과 더불어> 가이드북을 드립니다.



소선지서 연구의 안내자 김서택 목사의 국내 유일의 단권본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

★ 전13권 정가 106,900원 →

한정세트 특가 75,000원

★ 최상의 설교, 최선의 설교를 엄선하여 편집.

★ 단권본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로는 유일무이.

★ 한 사람의 편집자가 7년 3개월에 걸쳐 일관성 있게 마무리.

호세아_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1,2 1권 272면_8,800원/2권 292면_8,000원 요엘_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160면_6,000원
아모스_혈과 다시 세워라 360면_10,500원 오바다_가시 같은 이웃 112면_5,500원 요나_박
넙굴의 사랑 176면_6,500원 미가_전쟁 없는 나라 400면_13,000원 나훔_네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176면_6,800원
하박국_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176면_7,000원 스바냐_심판과 은혜 152면_6,800원 학
개_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112면_6,500원 스가랴_오직 나의 신으로 440면_14,500원 말라기_치료하는
광선 176면_7,000원

● 세트 구매자에게는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 가이드북을 드립니다.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